

물꼬 튼 비핵화...북미 2~3주내 실무협상

차기회담 워싱턴 개최 가능성
美 실무팀 폼페이오 주도
北 새 실무팀 진용은 미지수
리용호 외무상 등 포함 거론

1·2차 때와는 다른 새로운 실무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의 이번 실무협상은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금 정상들이 '톱 다운' 외교를 꾀하면서 성사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양국 정상은 1·2차 정상회담을 반면교사 삼아 '보통 업' 방식의 실무협상에 확실한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그간 북미 정상은 '진서 외교'를 통해 대화 의지를 꾸준히 강조해 왔고 문 대통령은 역시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3국 정상 간 신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남북 실무협상 주도로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대표로 하는 실무협상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측은

고 말하면서 비건 특별대표가 팀을 이끌 대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측은 어떤 인물로 실무협상팀을 꾸릴지 미지수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난 후 기존에 북미 협상을 총괄해 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은 한 때 처벌을 받았다는 설이 돌았다. 김 부위원장 등이 속속 북한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견제를 과시하기는 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데 책임을 지고 다시 협상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위상이 높아진 최섉외무성 제1부상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미 협상에 전방비 갖추는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 실무협상팀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실제로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은 북미 정상회담이 자유의집에서 회동하고 있을 당시 같은 건물의 로비에서 5분 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취재진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의제와 함께 차기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최 장소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개최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경호나 의전상 어려움 탓에 가능성이 다소 작게 점쳐졌다.

앞선 사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만큼 실무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수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 간 견제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도 더디게 진행될 공산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겠지만 우리는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88〉 풍도

풍도(馮道, 882~954)의 자는 가도(可道)이며 허베이성 셴현(獻縣) 출신이다. 오대십국 시대 다섯 왕조의 재상을 지낸 처세의 달인으로 평가받는다.

풍도는 평범한 가문 출신이다. 노동절도 유수광의 참모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유수광은 부친의 애첩과 정을 통하고 형을 죽인 잔학한 인간이었다. 대연(大燕) 황제를 자칭하였는데 유수광의 이종숙에게 대패했다. 그는 이종숙 휘하에 들어가 환관 장승업의 눈에 띄어 하동 절도장서기로 취임했다. 이종숙은 장종으로 제위에 올랐는데 그를 호부시랑 겸 한림학사로 임명했다. 장종은 후당을 멸망시키고 낙양으로 천도했다. 이후 부친상을 당해 3년상을 치렀다. 북상 중 일반 농민처럼 농사를 짓고 전답을 돌보았다. 장종은 황

태해 요나라의 침공을 자초했다. 아홉달이 전쟁해 석중귀를 생포하고 갖는 횡포를 저질렀다. 태부르 임명되자 태종을 설득해 가혹한 공포정치를 중지시켰다. "백성은 부처님이 재림해도 해낼 수 없고 오직 황제만이 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고 탄원해 무자비한 살생을 막았다.

하동절도사 유지원이 진양에서 후한을 세웠다. 유지원은 그에게 수대사라는 명예직을 하사했다. 유지원이 1년 만에 죽고 절도사 궤위가 군대를 동원해 개봉에서 즉위하니 후주의 태조다. 3년 후 954년 태조가 죽자 산릉사로 임명되던 해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후당, 후진, 요, 후한, 후주의 5 왕조에 출사해 8성 11군을 섬겼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과 극을 오간다. 신사를 짓고 전답을 돌보았다. 장종은 황

오대십국 다섯 왕조 재상 지낸 처세의 달인

음에 빠져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사전을 평정한 광속도를 환관의 말에 속아 주살했다. 장종의 가자(假子) 이사원이 반란을 일으켜 새 황제가 되니 명종이다. 명종 사후 3남 이종후가 즉위했지만 명종의 양자인 봉상절도사 이종가에게 살해되었다. 풍도는 "마땅히 만사에 성심을 다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종가에게 충성을 다했다. 이종가가 명종의 사위인 하동절도사 석경당을 제거하려 하자 석경당은 거란의 도움을 요청했다. 거란군과 함께 낙양으로 진격해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을 수립했다. 수도를 개봉으로 천도했다.

풍도는 후진에서도 재상의 직위를 이어갔다. 938년 국호를 요로 바꾼 거란의 태후책례사로 파견되었다. 태종 야율덕광의 신임을 받아 요에 오래 머물러 달라는 청을 받았다. 태종은 엄정한 금품을 하사하였다. 결국 태종의 허락을 받아 귀국길에 올랐는데 서두르지 않고 국경을 넘었다. 왜 이리 천천히 이동하느냐는 측근의 물음에 답하기를 "아무리 서둘러도 요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뒤엎을 것이므로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석경당이 죽은 후 후계 싸움이 벌어져 조가 석중귀가 황제가 되었다. 권력을 잡은 경연광 일파가 반요 노선을 채

치 않은 자라 할 수 있다"며 카멜레온적 처신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청나라의 사가 조익은 이십이사기에서 "풍도, 10군을 섬기어 마음에 송구스럽지 않고 스스로를 장락노자라 칭하며 나아가 받은 위계와 훈장, 관직을 영광으로 삼다. 수치가 있음을 모르는 자라 하겠다"고 혹독히 비판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임금은 흥하고 망했으니, 풍도의 부귀는 그대로였으니, 이는 곧 간신보다 더하다. 어찌 다음 사람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라며 혹평했다.

반면에 북송의 왕안석, 부필, 소철 등은 대인(大人)으로 평가했다. 특히 왕안석은 "풍도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백성을 평안하게 한 행동은 불가에서 보살들이 한 것과 같다"고 극찬하였다. 명나라의 이탁은 "백성이 전란의 고통을 면하게 된 것은 풍도가 백성을 안양(安養)하는데 전력을 다한 덕분이다"며 변호하였다.

풍도는 말년에 스스로를 장락노자(長樂老子)라 불렀는데 나라의 사직과 군주를 구분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직이 아니라 백성의 삶이었다. 일본작가 도나미 마모루는 나라를 임금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풍도의 길이 라는 글을 남겼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안양(安養)이었던 것이다.

北, 북미정상회담 보도...“美와 대화재개 합의...회담결과 만족”

회담 배석 리용호 외무상만 소개
“66년만에 분단의 상징서 악수”
“문 대통령과도 반갑게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넘어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며 두 정상은 회담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회담 자리에는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배석했다고 통신은 전해, 폼페이오 장관의 새카운터파트가 김영철 당 부위원장에서 리 외무상으로 교

체했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전날 생중계된 회담에서 포착된 김영철 당 제1부부장 등 다른 수행 인사는 호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보도에서 교착 국면에서 성사된 북미 간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마주한 순간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날 성사된 회담에 얽힌 남북미 정상들의 '스탠딩 회담'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자유의 집 앞에서 맞이한 사실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45%) 18억7백8십만원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공장** 곡성군 삼거리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공장**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45%) 6억6천6백8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5억8백7십만원
- 근린주택** 목포시 옥암동 토지 : 407.8㎡(123.4평) 건물 : 716.43㎡(216.7평) 지하1층지상2층
감정가 : 7억6백5십2만원 최저가 : (70%) 5억8백7십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45%) 10억9천5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